

“우리도 함께 뛰자”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7

“시민 건강증진 위해 함께 달려요”

광주시체육회

“광주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오는 2019년 개최예정인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 광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체육회가 올해를 ‘도약하는 광주체육’으로 시민행복 창조의 해로 정하고 환한 스타트를 끊었다. 이를 위해 시 체육회는 ▲제94회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육성과 체육지도자 관리 강화 ▲경기단체 조직강화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015 유니스타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 강화 등 10가지 과제를 선정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체육회 임직원은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도약하는 광주체육’을 내건 출사표를 던진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알리고

U대회 남북단일팀 성사 한걸음

전 직원이 5km·10km종목 도전장

시체육회의 올해 최대 당면과제는 ‘2015 광주 하계U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스포츠 사상 최초로 도합재생 방식의 선수촌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 U대회 종목 경기장이자 시민들의 열원이었던 개방형 친환경 야구장 건립사업 역시 2013년 말 준공을 앞두고 순항하고 있다. 야구를 포함한 21개 종목 경기시설도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소통을 통해 차질없이 준비해 가고 있어 FISU CTI(국제 경기위원회) 심사당시 각 종목별 위원들은 준비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또한 ‘2015 광주U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남북단일팀 성사를 위해 UN과 UNOSDP-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공동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해 ‘평화대회’(Peaceversade)로 만드는데 한걸음 더 나아갔다.

특히 오는 7월은 카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U대회를 인수하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성패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시체육회는 광주U대회 불꽃 조성과 함께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반드시 광주에 유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체육회는 올해 올림픽 스포츠스타 재능기부 사업 등 시민친화사업을 더욱 확대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대회와 전국규모 대회 유치, 타 시·도팀 전지훈련 유치 등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계획이다.



광주시체육회 임직원들이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의 완주와 함께 전국체전 성적향상, 성공적인 광주U대회 개최 등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을 담당할 계획이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체육을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광주’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었던 최고의 한 해라고 자평한다.

지난해 7월에 열렸던 제30회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광주시 소속 및 출신인 체조 양학선, 양궁 기보배, 펜싱 최은숙, 축구 기성용 등이 금 3·은 2·동 1개를 획득하면서 우리나라가 총 204개 참가국 중 5위를 차지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열린 ‘제59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

식에서 양학선(체조)·기보배(양궁)·김지현(수영)과 박재순 광주시청 양궁감독, 장계현 명진고 소프트볼 감독, 이승우 첨단고 불링코치 등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체육회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체육인의 날’로 정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단체를 하고 있다. 3·1마라톤 출전을 앞두고 지난달 30일에는 배구와 실내하키, 이어달리기 등을 하며 보강훈련을 실시했다. 20여명의 직원들이 5km 종목에 참

가하고, 이철영 영주체육 시설팀장이 10km 종목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부분 운동선수 출신으로 구성된 시체육회 직원들은 매주 1~2회 업무를 마친 후 월드컵 보조구장을 뛰며 자기 체력을 관리하고 있다.

시체육회 김홍식 상임부회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득점 종목을 집중 육성하고, 현장중심 행정을 강화해 경기단체 및 각급과 정보교류를 통해 전국체전 성적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KIA 선동열 감독과 선수들이 일본 오키나와에서의 첫 훈련이 진행된 지난 10일 설날을 맞아 맞절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프로야구 9개 구단 선수 553명

최남남 42세 10개월 3일 최고령

역대 연봉 121명·김태균 15억 최대

2013시즌 553명의 선수가 프로야구 그라운드에 도전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근 2013년 프로야구 9개 구단의 소속선수를 확정, 발표했다. 올 시즌 9개 구단에 등록된 소속선수는 기존 471명에 신인선수 68명과 외국인 선수 14명을 더해 총 553명이다.

KIA의 등록선수는 총 61명이고, 선동열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포함 82명이다.

평균 연봉은 9496만원으로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9441만원)에 비해 0.6% 증가했다.

‘리틀 챔피언’ 삼성이 1억2204만원으로 평균연봉이 가장 높고, 준우승팀 SK가 1억78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KIA의 평균연봉은 9427만원에서 10.8% 인상된 1억447만원으로 전체 3위다. 신생팀 NC의 평균연봉은 5836만원으로 나타났다.

역대연봉 선수도 12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나해 112명보다 9명 늘었으며 한화 김태균이 15억원으로 연봉킹 자리를 지켰고, 삼성 이승엽도 8억원을 받으며 2위에 자리했다.

투수에서는 넥센 김병현이 6억원으로 가장 많고 롯데 강민호는 5억5000만원에 계약하면서 역대 포수 연봉 최고기록(5억원)을 넘어섰다. SK 정근우(2루수·5억5000만원), SK 최정(3루수·5억2000만원), 넥센 강정호(유격수·3억원) 그리고 넥센 이택근, LG 이병규·이진영(이상 외야수·6억원)이 각 포지션별 연봉 1위를 기록했다. KIA의 연봉 랭킹에는 김주찬(5억원) 이병호(4억3500만원), 윤석민(3억8000만원), 서재응(3억5000만원), 이용규(3억4000만원)가 올랐다.

최장신과 최단신 타이틀은 변함없이 두산 니퍼트(203cm)와 김선빈(165cm)이 차지했다. KIA 최남남은 등록일자(1월31일) 기준 42세10개월3일을 기록하면서 최연소인 NC 신인 장현식(단 17세11개월7일)과 24세10개월25일의 나이차를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군단 ‘V11 약속의 땅’ 오키나와 캠프로

설날 세배하며 우승 다짐

주니치 등과 연습경기 예정

‘호랑이 군단’이 1박2일에 거친 대이동 끝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새해를 맞았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전지훈련을 해오던 KIA가 9일 일본 오키나와로 캠프를 이동했다. 1박2일간의 대이동이었다.

KIA의 여정은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애리조나에서 시작했다. 항공편으로 LA 공항으로 이동한 선수단은 이날 오후 한국행 비

행기에 올라 9일 오전 7시까지 13시간을 넘게 하늘을 날았다. 선수들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다시 출국 수속에 나서 오전 9시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2시간을 더 날아간 뒤에야 비로소 일본 오키나와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애리조나-LA-인천-오키나와, 비행시간만 20시간에 육박하는 강행군이었다.

어렵게 2차 캠프지에 짐을 푼 선수들은 10일 오키나와에서 새해를 시작했다. 일본에서의 첫 훈련날이 마침 설날 당일이었다 만큼 세배로 하루를 열었다.

선동열 감독 앞에 도열한 선수단은 큰절을 올렸고 선 감독도 선수들과 맞절을 하며 건강한 2013년을 기원했다. 외국인 선수 앤서니와 소사도 납득 절을 하며 세배 행렬에 동참했다.

선수단과 떨어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표 윤석민은 모처럼 가족과 함께 풍성한 설날을 보냈다.

9일 KIA 선수단과 함께 미국에서 귀국한 윤석민은 11일 WBC 대표팀 소집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는 대신 고향집으로 향했다. 운동부 생활을 하느라 명절을 잊고 지냈

던 윤석민에게 찾오는 14년만의 명절 연휴, 가족과 함께 설날을 보낸 윤석민은 세배돈 30만원까지 두둑하게 챙기며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냈다.

한편 새해를 오키나와에서 맞은 KIA 선수단은 컨디션 회복을 한 뒤 오는 14일 나고야장에서 니혼햄과 연습경기를 갖고 본격적인 실전 훈련에 들어간다.

KIA는 주니치, 야쿠르트, 라쿠텐, 한화, 넥센, SK, LG, 삼성 등과 연습경기를 하며 주전 윤곽을 그린 뒤 내달 6일 귀국길에 오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디아 고 유럽투어도 최연소 우승 신기록

뉴질랜드 오픈 15세8개월17일

개인 통산 3번째 프로 우승컵을 품에 안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6·시진)가 세계 여자 골프계에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리디아 고는 10일 ISPS 한다 뉴질랜드 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20만유로)에서 15세8개월17일의 나이로 정상에 올라 유럽 여자프로골프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06년 ANZ 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양희영이 세운 16세6개월8일의 기록을 10개월가량 앞당긴 것이다.

리디아 고는 이미 지난해 14세9개월의 나

이로 호주 여자골프 뉴사우스 웨일스 오픈에서 우승해 세계 남녀 최연소 프로 대회 우승 기록을 깨뜨렸고 8월에는 미국 여자 프로 골프(LPGA) 투어 캐나다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LPGA 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도 갈아치웠다. 뉴질랜드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이번 대회에서 뉴질랜드인이 우승한 것도 리디아 고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Gumsung Hotel Ariyang House. Features a blue decorative flower, text: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